

1980~1988년(안정성숙기)

◆ 사양기술

돼지 배합사료는 그 원료를 대부분 도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배합사료 가격의 자율화에 따라 사료업체는 완전경쟁시대에 들어섰다. 또한 배합사료를 생산함에 있어서 전자계산기를 이용한 최소비용사료의 배합기술 개발이 급진전되기에 이르렀다.

한편 곡물 도입량 증가에 따라 농후사료의 절약이라는 관점에서 양돈업에 저항감을 느끼게 되었고, 또한 사육규모가 커감에 따라서 농가부산물 및 잔반 등의 양돈사료로서의 활용도가 크게 떨어지게 되었다. 배합사료는 젓먹이사료, 젓떼기사료, 육성사료, 비육사료 및 포유모돈사료 등으로 구분하여 시판하게 되었으며, 배합사료의 발달은 돼지의 사양기술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돼지 육성방법에 있어서도 분만자돈의 포유기간을 종래의 8주령에서 점차 앞당겨 6주령으로 단축시켰고, 1970년대 후반만 해도 4~5주령에 이유시키는 것이 보편적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유일령을 3주령(주로 대규모 양돈장에서)으로 단축하거나 특수한 경우에는 1~2주령에서 이유시켜 번식간격을 최대한 좁힘으로써 모돈의 분만 회전수를 늘려나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육성비육면에서도 과거 재래종과 버크셔 위주로 사육할 당시에는 90kg 출하일령이 6개월 정도였으나 도입종돈에 의한 개량, 교잡에 의한 잡종강세 이용 등 사양기술 발달로 최근에는 150~165일령에 출하(종돈의 경우는 140일 기준)가 가능한 단계에까지 이르렀다. 또한 일당증체량도 종전의 0.7~0.8kg 수준에서 최근에는 0.9kg 수준에 이르게 되었고 경우에 따라서는 1.0kg 이상되는 경우도 볼 수 있는 단계에까지 이르렀다. 사료요구량도 1980년대 초만 하더라도 3.0 수준을 상회하였으나 최근에는 2.5 수준까지 개량되어 1980년대의 종돈개량 면모가 특색있게 나타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양돈업의 전·기업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생겨나고 있는 돼지 분뇨는 공해문제를 야기하게 되었고, 이와 같은 분뇨처리문제가 식수오염에까지 확산되어 양돈산업 발전과정에서 파생된 가장 큰 과제이며 장해요소로 대두되고 있다.

(자료출처 : 한국축산연감 1989~90 농수축산신문)